공연으로 보는 천도 법문

땡큐 붓다콘서트 2020 천도재 니르바나

3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
자명 기획 · 유진규 연출 · 박범훈 감수
마가, 이삼 스님 매고동 신은미 등 출연
더욱 웅장해진 스케일 화려해진 출연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기원정사 주지)은 3월 22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땡큐붓다 콘서트 2020 천도재 니르바나'를 개최한다.

2014년 불교계 최초로 국악뮤지컬로 발표된 바 있는 자명 스님의 '천도재 니르바나'는 2019년에도 뮤지컬로 성황리에 공연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땡큐붓다콘서트' 역시 자명 스님이 기획한 공연으로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공연의 테마인 '천도재'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염불을 통해 생전의 업장과 죄업을 소멸시키고 육체와 정신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옮겨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천도재의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사성제(四聖諦)와 더불어 조사들의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게송들을 음률화하여 목탁과 요령 또는 징과 북 등과 함께 읊는 의식이다. 때문에 천도재에 쓰였던 염불의 음률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음악이다. 고래로부터 사자전승된 승가만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천도재 자체가 음악으로 구성된 의식임을 생각할 때 '천도재 니르바나' 역시 공연이기에 앞서 또 다른 형식의 천도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자명 스님이 기획하고 제작한 이번 공연은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이 자문과 감수를 했으며,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연출한다. 지난해에 비해 더욱 웅장해진 스케일과 더욱 화려해진 출연진 그리고 최고 수준의 스텝으로 돌아온 이번 공연은 예불(禮佛)의 장 · 시식(施食)의 장 · 열반(涅槃)의 장 · 회향(回向)의 장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천도재의 시작은 대부분 법주가 영가를 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천도재의 시작을 알리는 염불로 영가를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으로 영가를 위로한다. 이렇게 법주가 영가를 모시면 몸의 때를 씻고 영가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업의 때를 씻는다. 법주의 청에 의해 부처님 앞에 다시 선 영가는 해탈의 새 옷을 입는다. 재주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주는 부처님께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축원을 한다.


2016년 서울 국립극장서 열린 '땡큐 붓다콘서트'에서 자명 스님이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마가 스님의 프롤로그로 공연이 시작되면 △'예불의 장'에서는 자명, 이삼, 성운, 태현, 고금 스님과 매고동이 출연해 범종타종, 영산회상, 거불청염불,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선회향무, 대법고를 선보인다.

자명 스님의 음성공양으로 시작되는 △'시식의 장'에서는 동환 스님과 동환봉명회 스님들, 전보현, 배일동, 조상민, 김모래가 출연해 무용, 판소리, 접행(사물오악), 회심곡, 장엄염불 등을 선보인다.

역시 자명 스님의 음성공양으로 문을 여는 △'열반의 장'에서는 김태란, 유진규, 강해진, 김보민, 윤서영, 김모래가 출연해 무소유의 노래, 마임(빈손), 해금연주(부처님의 향기 연꽃-작곡 이재성) 등을 선보인다.

법주가 부처님께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축원을 올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법을 설하는 천도 의식이 시작된다. 법은 경전 속의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들의 깨달음을 읊은 게송이 중심을 이룬다. 이울러 온갖 공덕과 지혜가 함축된 진언과 다라니도 들어있다. 법문을 영가가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영가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법신의 자리를 얻게 된다. 이때의 법문은 법주의 착어 법문으로 시작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생사는 또한 무엇인가' 등 의문과 답이 노래의 중심을 이룬다. 착어 대목에서 영가가 법의 요체를 깨닫지 못하면 영가는 다시 법문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 △'회향의 장'에서는 사부대중합창단과 신은미가 출연해 나무 아발로키테슈와라 챈트명상, 관세음보살(드로잉)을 선보이고 '연꽃 피어오리리' 대합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한 편의 천도재 법문이 끝난다. 대중이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 자리는 법신의 자리가 될 것이다. 만약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음 공연을 기다려야 한다.

자명 스님은 "문화포교라는 방편을 통해 우주 법계를 밝히고, 중생과 이웃을 제도할 수 있는 원대한 원력을 세웠고 가장 자명다운 방식으로 실천해왔다"며 "문화공양주라는 소임은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저의 가슴을 뛰게 했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 지도 모를 만큼 저절로 몰입되게 했으며 삼매에 들게 했다. '땡큐붓다콘서트 2020 천도재 니르바나'를 통해 대중 모두가 거룩한 행원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매문의 (010)9343-3001.



'응중산수(凝重山水) – 겨울' 展

가나아트센터 제3관 3월 1일까지

가나문화재단과 가나아트센터는 3월 1일까지 '응중산수' 전을 개최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겨울산의 묵직한 풍경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권순철, 김종구, 박대성, 사석원, 이명복, 이원희, 임옥상, 황재형 8인의 작품 13점이 전시된다.

대부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며, 박대성의 '화엄금강불설국(한지에 먹 236.5×611.4cm, 2011)<사진>을 비롯해 전시장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는 대작들이 많다. 8인의 작가는 겨울산의 풍경을 각자의 화풍으로 응중산수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임옥상의 '북한산에 기대어 살다(캔버스의 유채 225×740×8cm, 2020)', 권순철의 '백두(캔버스의 유채 248×333cm)', 김종구의 '무거운 구름 산수(캔버스에 혼합매체, 120×220cm)', 이원희의 '봉화설경(캔버스에 유채 130.5×194cm)', 이명복의 'Long Winter(캔버스에 유채 180×360cm)' 등이 전시된다. 박재완 기자

BBS 개국 30주년 '추억 공모전'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
행사, 방송 사진 · 영상 등
BBS 관련 모든 자료 가능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자들이 추억하는 불교방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추억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BBS불교방송과 관련한 추억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교방송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자료로 응모가능하다. 행사, 방송현장 사진을 비롯해 BBS불교방송과 관련된 사진, 방송 음원 및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BBS불교방송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시행하는 추억 공모전 최우수상에게 30만원, 우수상(2명) 20만원, 장려(3명)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한다. 그리고 특선(20명)과 입선은 기프티콘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전시에 활용되며, 사연 및 수기는 BBS불교방송 방송 매체에 소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철진 승무 강습회 개최

서울 대학로 스튜디오 SK
2월 29일, 3월 1일 양일간
이철진 공연 참여 우선권

전통 승무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철진<오른쪽 사진>이 승무 강습회를 열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습회는 2월 29일과 3월 1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 대학로 스튜디오 SK에서 열린다. 참여 문의(010-3826-4446).

강습회 참여 후 부여받는 해택은 이철진과 함께 승무와 전통춤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철진이 기획하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준비물은 연습복, 장삼, 버선, 북가락 등이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현재 구슬주머니 대표인 이철진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이애주에게 사사했다.



1988년 첫 개인발표회 '이철진의 전통춤'을 시작으로 2007년 '보름간의 승무여행', 2010년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등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왔다.

박재완 기자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현성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 강 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